

[별첨] 논문작성요령

I. 투고형식

1. 논문은 일반논문, 판례, 심결례평석, 번역, 자료 등 논문의 종류를 구별하여 작성한다.
2. 논문은 표지, 제목, 저자, 목차, 국문요지, 본문, 참고문헌, 외국문 요지, 키워드의 순으로 적성한다. 외국문 요지는 영문, 독문, 불문으로 작성하며, 필요한 경우 위원회의 결정에 따라 다른 외국어로도 작성할 수 있다.
3. 논문의 표지에는 논문종류, 제목, 저자명, 소속, 직책, 학위, 주소, 전화번호와 E-mail 주소를 기재한다.
4. 국문 주제어와 외국문 키워드는 각각 5개 이상 작성한다. 국문 주제어는 외국문 키워드와 병기하여 “국문주제어(외국문 키워드)”의 형태로 외국문 요지 아래에 함께 기재한다.
5. 논문 본문의 첫머리에 논문제목을 표기하고 제목 아래에 저자명을 기재한다. 필자의 소속 및 직위는 각주(*)로 처리한다.
6. 주저자(主著者), 공동저자 등을 구분하여 표기한다. 특별한 표시가 없는 경우에는 제일 앞에 기재된 자를 주저자로 본다.

II. 목차순서

I. 로마숫자(중양으로, 진하게)

1. 아라비아숫자(2칸 들여쓰기, 진하게)

가. 한글(4칸 들여쓰기)

1) 괄호숫자(6칸 들여쓰기)

가) 괄호한글(8칸 들여쓰기, 가, 나, 다 순)

(1) 반괄호숫자(9칸 들여쓰기)

(가) 반괄호한글(10칸 들여쓰기)

III. 논문작성방법

1. 본문작성(‘한글’ 프로그램(‘한글’ 97제외)에 따름)

가. 편집용지의 여백주기(F7키) 설정

위쪽 : 37.88, 아래쪽 : 38.0, 왼쪽 : 35.88, 오른쪽 : 35.88, 머리말 : 11.99,

꼬리말 : 11.99, 제본 : 0

나. 글자모양

서체 : 바탕, 장평 : 100, 자간 : 0, 글자크기 : 10.5

다. 문단모양

왼쪽 : 0, 오른쪽 : 0, 들여쓰기 : 10, 줄간격 : 170, 문단위 : 0, 문단아래 : 0,

정렬방식 : 혼합, 낱말간격 : 0

2. 각주표기

가. 저서 : 저자명, 『서명』,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 나. 논문 : 저자명, “논문제목”, 00학위논문, 00대학(교), 출판년도, 면수 또는 저자명, “논문제목”, 『서명』, 출판사, 면수.
- 다. 기념논문 : 저자명, “논문제목” 『논문집명』, 000선생기념논문집, 출판사, 출판년도, 면수.
- 라. 정기간행물 : 저자명, “논문제목”, 『잡지명』 제00권 제0호, 발행사, 발행년도, 면수.
- 마. 판례 : 대법원 19○○.○○.○○. 선고 ○○다○○○○판결
또는 대판 19○○.○○.○○, ○○다○○○○.
- 외국판례는 그 나라의 표준 인용방식에 따른다.
- 바. 앞의 각주 혹은 같은 각주에서 제시된 문헌을 그 다음에 다시 인용할 경우의 각주는 다음과 같이 표기한다. 국내문헌, 동양문헌, 서구문헌 모두 같다. 다만, 저자나 문헌 혹은 양자 모두가 여럿인 경우에는 이에 따르지 않고 각각 필요한 저자명, 문헌명 등을 덧붙여 표기함으로써 구별한다.
- (1) 바로 위의 각주가 아닌 앞의 각주의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
- (가) 저서인용 : 저자명, 앞의 책, 면수.
- (나) 논문인용 : 저자명, 앞의 글, 면수.
- (다) 논문 이외의 글 : 저자명, 앞의 글, 면수.
- (2) 바로 앞의 각주에 인용된 문헌을 다시 인용할 경우에는 “위의 책, 면수”, “위의 글, 면수”로 표시한다.
- (3) 하나의 각주에서 앞서 인용한 문헌을 다시 인용하는 경우는 “같은 책, 면수”, “같은 글, 면수”로 표시한다.
- 사. 외국문헌은 국내문헌에 준하여 표기하지만, 그 나라의 표준표기방식에 따라 표시할 수 있다.
- 아. 국문 또는 한자로 표기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면으로, 로마자로 표기되는 저서나 논문을 인용할 때는 p.(p. 501, pp. 252~501) 또는 S.(S. 501, S. 501 ff.)로 인용면수를 표기한다.
- 자. 외국인명은 이름, 성(姓) 순으로 표기한다(예 : Harm Peter Westermann).
- 차. 공저자는 ‘/’를 사용하여 표기한다[예 : 강만길/박현채/변형윤].
- 카. 면수나 연도 등에서 ‘부터 까지’를 나타내는 부호는 ‘-’를 사용한다.
- 타. 문단모양
왼쪽 : 0, 오른쪽 : 0, 내어쓰기 : 9, 줄간격 : 130, 문단위 : 0, 문단아래 : 0
정렬방식 : 혼합, 낱말간격 : 0
- 파. 글자모양
서체 : 바탕, 장평 : 100, 자간 : 0, 글자크기 : 9

3. 참고문헌

- 가. 위치 : 본문을 기재하고 참고문헌을 기재한다.
- 나. 순서 : 국문, 외국문헌 순으로 정리하되, 단행본, 논문, 자료의 순으로 정리한다.
- 다. 참고문헌의 표기방법은 각주의 표기방법과 같다. 다만, 외국인명은 성(姓), 이름 순으로 표기한다(예: Westermann, Harm Peter 또는 Westermann, Harm P.)

4. 초록

- 가. 국문 초록의 경우 A4 편집용지 기준으로 약 3분의2면 분량으로 작성하며 1면을 넘지 않도록 한다.
- 나. 본문의 전체 내용을 용이하게 파악할 수 있도록 주요 쟁점을 명확히 드러나게 기술한다.
- 다. 영문 등 외국문 초록의 경우에도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되, 언어의 특성에 따라 다소 상이한

분량 기준을 적용할 수 있다.

IV. 기타

가. 직접 인용할 때에는 “ ”를 사용하고, 강조할 때는 ‘ ’, 「 」, 밑줄, 굵은 글씨를 사용한다.

나. 저자의 논문이나 저술을 가리킬 때에는 ‘줄고’라는 용어를 사용하지 않으며, 반드시 이름을 밝혀 적는다. 또한 각주에도 拙著, 拙稿 등의 표시를 하지 않고 저자의 성명을 표기한다.